

학생 안보현장 체험 소감문 최우수상

휴전선 최전방 GOP를 다녀온 후

이 인 서 (경기 한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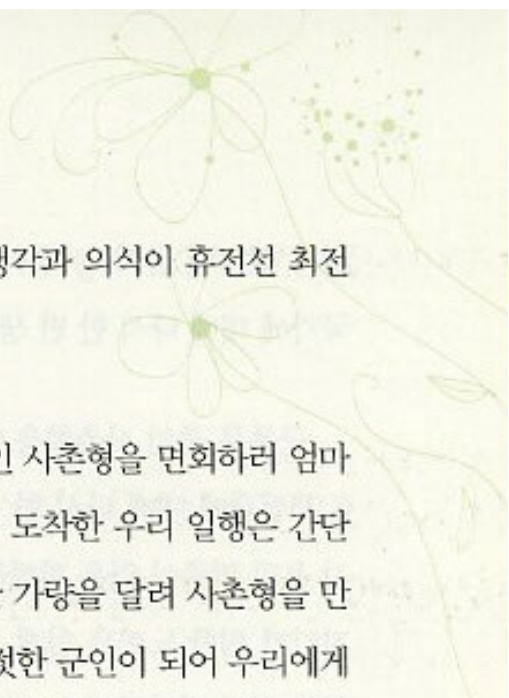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키는 것임을.....

아무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대신 지켜 주지 않음을.....

자유는 금강산의 아름다움보다 몇 천 배는 더 소중한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새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찾아왔다. 들녘에는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놀림이 바빠 보인다. 봄에 생각나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던 할머니는 인심이 넉넉해지는 봄에는 쓸쓸한 이웃들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오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더 가족이 소중하고 그림고 보고 싶은 계절이라며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휴전선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다고..... 그 때 나는 할머니께서 6·25전쟁과 통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생각과 의식이 휴전선 최전방 GOP를 다녀온 후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주말을 이용해 휴전선 근처 어느 부대에서 군 복무중인 사촌형을 면회하러 엄마와 이모와 함께 동행 하여 강원도 인제의 원통에 다녀왔다. 부대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간단한 교육을 받고 철모를 쓰고 군용 트럭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2시간 가량을 달려 사촌형을 만날 수 있었다. 컴퓨터 게임과 햄버거를 좋아하던 사촌형이 진짜 의젓한 군인이 되어 우리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나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왼쪽 팔에 MP라고 새겨진 완장을 찬 늙은 사촌형을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우리 일행은 군복무 중인 사촌형을 오래간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운 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 날 저녁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사촌형이 근무하는 곳은 바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이었다. 근처엔 온통 철조망과 '지뢰발 주의' 표지판들 뿐이었다. 무엇인지 모를 팽팽한 긴장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내 가슴이 답답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민족 분단에 대한 처절한 아픔의 기억이었다. 이렇게 가까이에 북한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니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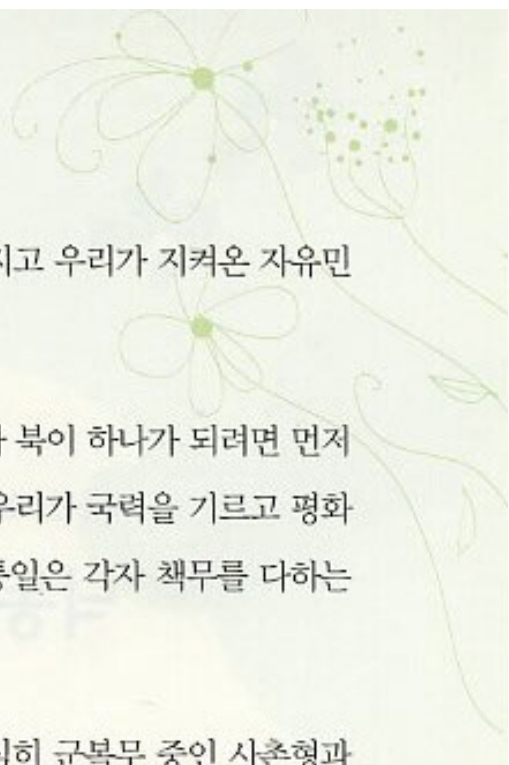
분단으로 인해 행복했던 가족이 하루 아침에 이산가족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 서로 그리워하고 산 세월이 너무 길었다. 같은 하늘아래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조차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며 지금껏 지내왔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늙어 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얼마나 자신을 원망했을까? 지금 살아계신 전쟁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전쟁 때문에 생긴 아픔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은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게 된다는 뜻이다. 전쟁 속에서도 강한 의지와 안보의식으로 살아오신 그 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

리가 없는데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 분들의 안보의식을 배우고, 고마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국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군복무 중인 사촌형을 만나러 간 휴전선 최전방 GOP에서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고 돌아와 6.25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정신적인 상처까지 우리 민족이 입은 피해는 막심하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많은 피를 흘려 지킨 자유와 평화를 쉽게 빼앗길 수는 없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그리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얼마 전에 쏘아 올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 등을 두 눈으로 정확히 지켜 본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은 곳에 안보의식을 품어 이를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성장시켜가야만 할 것이다.

금강산의 그 향기로운 봄 꽃 향기에 취해 있더라도, 백두산의 그 빼어난 경치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두 얼굴을 지닌 저 북녘의 이중성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키는 것임을……. 아무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대신 지켜 주지 않음을……. 자유는 금강산의 아름다움보다 몇 천 배는 더 소중한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국가 안보 의식이 날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가고 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안보 의식을 한층 더 확고히 다져야 한다. 교묘한 수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지금 당장 생각을 올바르게 바꾸어야 한다.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 말로만 될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병역은 국토방위로 주권을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력의 기초이고 바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과거의 아픈 역사와 기억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애국심으로 병역에 임해야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나도 알고 있다. 각자 자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



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국력은 강해지고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더욱 다져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휴전선에 막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국력을 기르고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주적 평화 통일은 각자 책무를 다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최전방에서 최상의 자부심과 철저한 군연 정신으로 열심히 군복무 중인 사촌형과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편히 숨쉬고 편히 잘 수 있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삶을 윤택하게 꾸려갈 수 있는 것이다. 사촌형의 능통한 모습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그가 짊어진 그 임무를 내가 맡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